



HOME &gt; 지역 &gt; 충남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인력난 겪는 농촌 일손돕기, ESG경영실천!

양한우 기자 | 승인 2022.05.08 14:15

[공주]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지사장 조성명)는 마늘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의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쳐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보탰다.

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봄철 영농기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입국 불가 등으로 일손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촌에 일손돕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늘쫑 뽑기 등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영농활동이 많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힘을 보태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가에 대한 지원활동으로 봄 햇살 치곤 따가운 햇볕 아래에서도 정성스러운 손길로 농촌의 시름을 덜었다.

조성명 지사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많은 농민들과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추진했다"며 "사회공헌 뿐만 아니라 안전한 영농기반 조성,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 ESG경영과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촌일손 돕기를 비롯한 농가 지원 및 사회적 책임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지사장 조성명)는 마늘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의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쳐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보탬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제공



양한우 기자 yhwseoul@daejonilbo.com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